

비영리

| 비영리 자조 단체 |
당사자 운동조직의 거버넌스

거버넌스

인사이드

효과적인 당사자 운동의 조건

비영리 법인의 합병·분할은 가능한가

이 명 신 강 의 영 정 낙 섭 황 인 형 김 주 련 김 경 수 김 미 영 윤 환 철

아름다운 파트너십은 엑시트(EXIT)도 아름다워야!

최근 소셜 섹터 내 가장 큰 이슈는 A기관과 B기관이 2019년부터 함께해온 사업의 종료를 둘러싼 논란일 것이다. 현재 이 사업은 네 번째 성과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종료과정에서 B기관의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기관이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실패? |

이 글은 생각보다 파장이 컸다. B기관 대표의 문제 제기에 비영리영역이 술렁이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파트너 기관 간의 절차와 신의 문제는 B기관 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당했을 법한” 비영리 모두가 공감하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면서 단일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콜렉티브 임팩트, 협력적 거버넌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명칭이 무엇이든 둘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뜻한다. 세상의 어느 조직도 이익이 되지 않는 협력관계를 맺는 경우는 없다. 파트너십은 각자가 가진 자원, 역량, 가치를 교환 혹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며,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갑이 가진 ‘돈’은 을이 가진 ‘가치’나 ‘전문성’과 등가교환이 성립되지 않으며, 갑은 더욱 기세등등하고 을은 쪼그라들어 둘 간의 위계적 권력 관계가 형성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 파트너십의 기초 - 신뢰와 존중 |

파트너십을 맺는 단체들은 각자의 파트너들과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수행의 결정 과정을 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나 과정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파트너십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일관되게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결정적 요인으로 ‘신뢰’를 언급하고 있다. 신뢰는 대인 간의 상호작용과 교환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신뢰가 개인 수준이나 대인관계 수준에서 인지적 혹은 정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거시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신뢰는 ‘교환관계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

는 일련의 제도화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조직 간 파트너십에 있어서 신뢰는 단순히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다.

| 아름다운 파트너십의 시작과 끝 |

언제부턴가 비영리 현장에서 “갑을병정”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비영리조직은 정부나 기업과의 파트너십에서 항상 “을”의 입장이다. 그런데, 비영리 생태계 내에서 새롭게 갑은 슈퍼갑, 을은 갑 그리고 밑으로 병정의 관계로 재편되어 병정에 위치한 비영리단체들만 온갖 서류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 힘들어졌다. 계약법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것으로 갑과 을을 사용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갑과 을은 상하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갑(甲)’은 유교 경전인 주역에서 다루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10간(干)의 첫 자다. 즉 10간은 상하 서열이 아닌 천지에도 열 가지 기운이 있음을 뜻하는 동등한 개념이다.

파트너십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축진되는 것이다. 공과 사를 떠나 영원한 파트너십이란 없다. 언젠가는 엑시트(exit)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했던가. 시작이 좋을 때보다 끝이 좋은 것이 낫다(A good ending is better than a good beginning). 함께 협력하여 이뤄낸 그간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만큼이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해본다.



이명진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장애당사자, 생존당사자, 당사자성의 결여. 앞선 표현들의 익숙함이 말해주듯,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라는 단어는 법률적 의미 이상을 가진지 오래다. 사회운동, 소수자 정책, 복지 실천에서 지난 20년간 당사자주의는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일상적으로도 당사자성이라는 단어가 일반명사처럼 쓰이곤 한다. 당사자에 대한 빈번한 호명은 '관련자가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의 전부로 생각케 하지만, 사실 당사자주의의 의미와 작동은 통념보다 복잡하다. 누군가를 당사자라고 호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따라서 어떤 실천 방식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사자주의를 단순히 '관련자를 단체에 포함하는 것' 내지는 '관련자의 입장을 비판연자 중심 활동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지향과 실천 사이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주의의 의미와 실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당사자, 당사자주의란?** | 본래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當事者)'는 법률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에 대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와 일본에서 복지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이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이것이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장애운동에 도입되면서 당사자라는 단어는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사람'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운동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이동권 투쟁, 탈시설 투쟁, 정신장애 권익운동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해 왔고, 그 결과 장애운동만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 운동에서도 '충실한 당사자성 확보' 흐름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로는 당사자 운동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단순히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그리고 당사자주의는 소수자를 실천에 명목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가 실천을 이끄는 것임을 드러낸다. 즉, 장애, 사회적 재난, 질환, 이주, 귀어성 등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사회적 소외를 낳는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의 주안점이다.

▶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 운동의 역할** | 최근 한국에서는 당사자 단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등의 장애권익 단체들, 섭식장애건강권연대 등의 질환경험자 단체들은 물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무수한 영역에서 당사자 단체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들은 소수자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요구를 직접 발화하고 오인

을 해체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심각한 낙인을 마주하며, 강제입원이 정신장애인에게 다방면의 폭력을 가한다는 문제의식을 쏘아 올렸다. 이전에도 사회복지계의 정신장애인 권익 옹호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때의 의제는 어떻게 정신장애인을 시설 내에서 보호할지, 혹은 지역사회에서 지원할지 등에 한정되었다. 이 시도들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을 '보호와 보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당사자 활동가들은 직접 다른 정신장애인들과 소통하여 강제입원제 폐지나 미디어 규제와 같은, 경험자의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의제화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당사자 중심 실천이 누군가를 '위한' 것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 중심 운동은 대부분 '누군가'의 실천이기에 더 구체적이며 편견에서 벗어난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당사자주의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 경험자의 참여가 당사자주의의 강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몇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당사자는 '만들어진' 타인이 아닌 자신에 의해 규정된다. 많은 단체들은 제도적 증명(의료적 진단 등)보다 '소수자로 사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단체 차원에서 누가 이 운동에 참여할지를 정할 때, 타인이 파악한 경험의 경중보다도 그 경험에 대한 관련자의 문제의식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같이 단체에서 경험을 고찰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로, 당사자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때로 운동에 제한이 된다는 점이다. 당사자 단체에는 차별로 인해 경제적, 교육적 어려움에 노출된 활동가들이 많고, 활동 초반에는 비당사자 지지자도 부족하다. **이 때 비당사자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비당사자 단체와 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주의를 실천할 경우 단체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사자 활동가들이 활동 방향을 주도하는 선에서 비당사자의 행정역량을 빌리거나 관점을 참고하고, 비당사자 중심 단체와 관계적·물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은 여러 단체들이 실천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민들이 단체 내부, 그리고 단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되고 충분히 논의되었을 때 당사자주의의 잠재력이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강예홍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효과적인 당사자 운동의 조건

여기 세 명의 20년 지기 친구가 있다. 그들은 가족과 교류하고 지낼 정도로 친숙한 사이로 오래전 해외여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적금을 부었다. 드디어 적금이 만기 되어 여행 일정, 여행지 선정, 필요 경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서로 의견이 달라 애를 먹었으나 어느덧 계획이 마무리되어 여행길에 올랐다. 이들은 15일 동안 여행지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서로에 대해 몰랐던 점을 발견하게 되고 별거 아닌 일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도 했다. 서로를 잘 알던 이들이 여행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우정을 지키기 위해 의견이 다를 때 누군가 양보해야 했고 각자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는 한 사람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여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20년 지기 여행 사례는 아무리 친숙한 사이라도 갈등은 생길 수 있고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할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항상 새로운 이슈와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영리, 비영리, 사회 모든 분야 사람이 모이는 조직에는 조직을 통솔할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특히 비영리 단체의 리더는 다른 조직들보다 더 높은 덕목을 요구받는 자리다. 사회변화나 권리옹호,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비영리 조직에 들어온 활동가들은 개인의 물질적 욕망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으므로 그들을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리더는 더욱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조직 미션에 부합하는 전문성, 그리고 열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가끔 당사자 운동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해온다. 대부분 '후원 회원 증가가 안 되고 후원을 받기 어려워 재정적으로 힘들다. 내부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심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몇 시간의 상담으로 한 조직의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운동 조직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 내부로는 각종 기구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하고, 외부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협조를 받아야 할 파트너들과 전략적인 관계망을 유지하며 소통하고 있

는지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

당사자 운동 조직의 캠페인 방식이 좀 더 유쾌하고 재미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사회적 가치와 약자 권리를 위해 일한다는 당위성만 내세워 참여를 호소하는 방식은 옳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마음을 다해 질문하고 답을 구하다 보면 효과적인 거버넌스 리더십을 갖춘 운동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거버넌스 리더십 역량강화** | 다음으로 이사회와 각종 기구의 거버넌스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을 갖춘 리더가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퇴장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비영리 이사회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면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많지만 명망가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거수기 이사회로 운영하거나 자리를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특정인의 지인 중심으로 구성된 곳도 많다. 시작부터 건강하지 못한 거버넌스는 조직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므로 어떤 사람을 우리 단체에 참여시키고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

역량 있는 리더와 구성원이 모였으나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처지에 놓인 비영리단체라면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표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AI와 챗GPT가 등장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1인 미디어 등 사회 환경 변화가 빠른 시대에 십수 년 전 만들어 놓은 조직 미션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미션이 현시대에 요구되는 미션인지, 우리 조직이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내부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활발히 토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정연연

한국모금가협회 감사

당사자성의 힘: 자조 단체 거버넌스의 특징

비영리 자조 단체(Self-help organization)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대표성을 갖는 거버넌스 특징을 갖고 있다. 당사자 운동 단체들을 만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다.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비교해서 어떤 독특성이 있을까? 자조 단체들이 자신들의 미션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 **비공식적인 공동체의 구조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자조 단체는 서로 돕는 상호부조 혹은 상호지원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시작부터 비공식적인 공동체의 구조와 성격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간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활동으로 시작해서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연구 및 입안활동을 하게 된다. 어느 시점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비공식적인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서 조직화(법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체의 리더들은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일에 대해 고민이 많고, 변경 후에도 제한된 내부인력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공식적인 커뮤니티로 남느냐 법인으로 조직화 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체의 성장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적으로 단체 거버넌스의 주체 즉, 이사회와 대표의 결정이 중요하다.

▶ **다른 비영리단체에 비해서 자발성과 참여도가 높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은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당사자 운동은 이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 자조 단체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주인과 대리인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업을 맡기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당사자성이 일반 비영리단체에 비해 자조 단체들의 자발성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 어쩌면 당사자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참여에 있다. 특히 자조 단체 회원들은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실질적인 참여를 원하며, 나아가서 능동적인 참여를 선택한다.

▶ **이사회 유형은 운영팀형이 주를 이룬다** | 자조 단체의 거버넌스 유형은 주로 활동 지원이 쉬운 운영팀형(Management Team Model)이다. 일반적으로는 이사회와 운영팀이 협력하는 협력형 거버넌스를 이상적으로 여기지만, 당사자 운동은 그렇지 않다. 의사결정과 사업진행을 모두 회원들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소수의 외부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사회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이다** | 자조 단체는 초창기에는 사회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방법을 모르거나 스스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된다. 인식개선 활동이나 입법청원 활동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당사자 운동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당사자의 눈으로 판단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요구가 사회구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를 빼고 당사자 운동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성은 자조 단체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비영리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당사자성 없는 거버넌스의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

재단법인 두잉굿네트 대표



당사자가 아니어도 약자에게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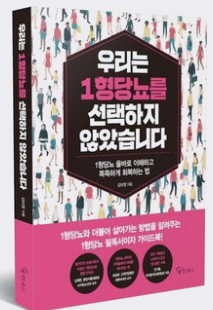
김미영

(사)한국1형 당뇨병환우회 대표

사단법인 한국1형 당뇨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환우들의 올바른 당뇨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가족들의 권익향상과 1형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환우회 김미영 대표를 만나 환우회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담은 지난 4월 11일에 진행되었으며,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총장이 함께했습니다.

| Q.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원래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아이 엄마고요. 워킹맘이라고 하죠.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아주 뛰어난게 일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약간은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던 중에 첫째 아이가 딱 3살 때 1형 당뇨를 진단 받았어요. 처음 아이가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당뇨 자체를 아예 몰랐는데 그 때부터 1형 당뇨라는 질환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이랑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계속 올리고 관련 논문이나 해외의 새로운 의료가기나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혜성처럼 등장한 소명맘이라고 했었어요. 저희 첫째 이름이 소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혈당 관리 방법을 공유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들을 입법화하려고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뭔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이라고 느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운영진이 좀 못마땅하게 여겨서 저희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그 대목도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존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들보다 더 낮고 적극적인 해법을 가진 분이 거부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A. 맞아요. 지금 영화를 찍고 있어요. 11월에 시사회를 하는데 <슈가>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제 역할을 최지우 배우가 맡았어요.

Q. 이런 영화가 흔치는 않은데,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죠. 오래됐지만 기억이 나요. 아주 인상 깊었던데요.

A. 네. 저도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로렌조 오일>을 다섯 번 정도 봤어요. 뭔가 힘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Q. 지금 무기력이라고 하셨는데요. 탈진이 어디서 오셨나요?

A. 환자단체 대표로서의 무기력함보다는 제가 보호자로서 저희 아이의 혈당을 관리 해주지 못할 때의 무기력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놓은 주사를 맞고 아이가 저혈당이 되거나 고혈당이 되는 순간, 내 손에 아이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나는 의학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고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혈당 관리하는 방법들이나 새로운 의료가기들이 없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어요. 절망이나 우울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죠.

Q. 그럼 조직을 운영하시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다른 차원의 번아웃이죠. 이런 활동을 그만하고 싶거나 실망하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A.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기존 운영자의 자리를 전혀 넘보지도 않았고 그냥 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이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입소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보육법을 입법화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기존 운영자가 그 건에 대해 반대했어요. 결국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면서 기존 운영자가 저희한테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동지를 틀게 되었고요. 그때도 저희 남편은 그냥 우리 애만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반대했었죠. 왜냐하면 둘째 아이가 돌이 안 났었거든요. 둘째가 아이를 계속 안고 동영상을 만들고 공문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반대할 만했지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의료가기를 쓰고 너무 좋길래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소개받은 분들이 직접 영어로 메일을 쓰고, IT기술로 연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셔서 도와드리다가 결국 식약처와 관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남편이 이제 그만하자고, 우린 할 만큼 했다고 했었죠.

그 와중에 고발에 대한 소명을 제가 다 해야 했고, 많은 1형 당뇨 가족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수천장의 탄원서를 써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두고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분들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죠.



△ 윤환철



Q. 환우회 커뮤니티를 조직(법인)화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시겠네요.

A. 관세법과 의료기기법으로 식약처랑 관세청에서 고발을 당했을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대표라고 불렀어요. 제가 새로운 정보나 의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대표성을 띠고 이분들을 도와줬다고 계속 식약처랑 관세청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냥 커뮤니티야. 너는 공식적인 직함도 없고, 그냥 소명만일 뿐이야. 네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지금 당장 이익이 없어도 언젠가 네가 사업을 하려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실제 고발도 그렇게 들어왔어” 의료기기를 들여와서 판매를 하려고 사전영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순수하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았던 거지요. 결국 6월 말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고, 7월에 바로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을 했어요.

Q.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 단계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A. 사실 제가 환자단체 대표를 계속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환우회 조직이 안정화되면 대표를 그만둘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최근까지 저밖에 없었어요. 운영 이사님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계셨어요. 그분들이 온라인에서 제가 하는 일들을 조금씩 도와주기는 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은 힘들었어요. 대외적인 일들까지 전부 제가 다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재무 관련 이사님 한 분을 직원으로 모셨고, 그 분이 행정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Q. 환우회가 자발적인 비영리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용어로 말하면 독점이네요. 왜냐하면 다른 대체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우회로 몰려온다는 말씀이고, 고용주가 아니신데, 본인을 흑사하고 계신 거였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사회 운영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재무담당은 상근 이사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셨고요. 다른 부분들도 업무 분담이 자연스럽게 잘 되셨나요?

A. 각 활동영역에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문서 작업이나 디자인을 잘하셔서 환우회 행사와 관련된 포스터나 동영상물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을 운영 이사로 영입했어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운영 이사회(19명)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법인이사로는 저 포함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에 계속 사단법인을 신청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서울시는 “환우회 범위가 전국구이고, 이미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수용할 수 없어. 그래서 복지부로 가라. 질병청으로 가라.”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는 “우리는 포화 상태라서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면서 다시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법인이 되는데 3년이나 걸렸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단법인을 꾸리다 보니까 이사를 세 명으로 했고요.

복지부와 질병청이 끝내 거절해서 결국 서울시에서 사단법인을 허가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서울시 1형 당뇨병 환우회라고 하라고 해서, 서울시는 빼달라고 했더니 그럼 한국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형 당뇨병 환우회로 가려다가 극적으로 한국을 붙여서 하긴 했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Q. 사단법인을 설립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으셨군요. 그럼 환우분들과의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A. 저희는 커뮤니티로 시작한 환자단체예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가 있고, 지금 회원이 11,40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거기에 다 올리면,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글들을 다 읽거든요. 하루에 많게는 50개 정도로 올라오는데 이동하면서 다 읽어요. ‘환우분들이 지금 이게 어렵구나.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확인하고요 또 저희 환우회에는 지역 대표님들이 계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 대표님을 주축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상반기, 하반기 지역 모임들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역 대표님들이 지역 환우들과 소통을 한 뒤 환우들의 어려움에 대해 운영진들과 공유를 하시고요. 또 지역별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앙으로 가져오시면서 소통하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는 가족 캠프도 하고 지역 오프라인모임에는 저도 가끔 방문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문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환우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선하자고 의견이 모이면 설문 조사를 합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 내용을 의견서로 만들어서 복지부나 의료보험공단이나 식약처에 전달해서 바뀌어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부 소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Q.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초창기 고생하신 것에 대해 조금 보상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개인의 사적인 어려움이 공적 솔루션으로 발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정말 좋은 거버넌스인데, 이 협력 관계가 더 좋은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계속 선순환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셨고 야무지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기 수출입 문제는 끝나셨나요?

A. 네, 국내 허가도 받았고 건강보험도 지원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Q.** 정부는 계속 협력을 해주는 편인가요?

A. 그렇죠. 저희 목소리를 다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계속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서 형태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서를 토대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건강보험 정책을 바꾼다거나 하면서 서서히 바뀌고는 있어요. 저희가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 **Q.** 다음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여쭙볼 차례인데, 어떠신가요? 지금 정도로 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가요?

A. 저희가 작년 7월에 사단법인이 되기 전에 비영리 임의단체

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공익법인이 아니기에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없는 살림을 쥐어짜며 환우회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익법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기획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희망 가방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초기에 당뇨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환우회가 있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기계는 이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다 써보고 당신들한테 맞는 것을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에 대한 교육까지 다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 가방 안에 당뇨인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넣기 위해 당뇨 관련된 업체들을 다 불러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 사업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호응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환우들을 위해 하고 싶은 사업이 정말 많아요. 1형 당뇨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번 사업기획에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이라는 것도 넣었습니다.

또 해외 환자단체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대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서 그 아이가 졸업하고 사회에 안착하는 데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하고 싶어요.

지난 1월에는 일본의 1형 당뇨 환자단체와 미팅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저희 환우회보다 예산이 훨씬 많았어요. 저희는 1년에 8억 정도인데, 일본은 80억 원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가현이라는 일본의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1형 당뇨 연구 기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본 환우회는 직원들만 11명이고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일본의 1형 당뇨병 환자단체는 1형 당뇨의 완치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동안 관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물론 완치되기 전까지는 잘 관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지만 결국은 완치가 저희의 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 환자단체는 저희의 활동을 보고 “아니, 너희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나?”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분들은 저희한테 자극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Q. 환자단체들끼리 서로 배우는 면이 있었네요.

A. 일본 환자단체의 경우처럼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 환우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지금도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연구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거니까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좀 더 큰 범위에서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게 저의 미래 비전입니다.

Q.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A. 저도 과거에는 개인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개인적인 욕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 TV에 나오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관심을 갖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처음 1형 당뇨를 진단받은 뒤에 느꼈던 건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것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



요. 그러니까 환자가 되는 것,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회적 약자나 환자나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공익단체들이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만든 단체의 힘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단체는 비록 재정, 역량, 인력풀 이런 것들에서 어떤 한계는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환우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환우회의 존재조차 모르고, 이 병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책 제목이 <우리는 1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시다.>잖아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우리는 1형 당뇨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환우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형 당뇨를 몰랐던 사람 중의 하나로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나쁜 철학 중의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 감추고 있냐 하면, 가장 힘든 사람의 가장 힘든 상황을 감추고 있어요. “너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수만 행복하면 돼.”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죽이고,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해 주신 이야기들이 잘 전해지고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은 가능한가?



비영리법인의 규모가 커지거나 지부의 숫자가 늘어나 관리감독의 부담이 늘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법인을 분할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여러 조직의 통합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때 법인의 운영자는 자연스럽게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불가능하다.

▶ **왜 필요한가?** | 상법상의 회사는 합병과 분할이 모두 가능하다. 합병과 분할의 효과는 권리의무의 승계다. 예를 들어, 상법상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주식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은 합병만 할 수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협동조합은 합병과 분할이 모두 가능하다(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그런데 민법은 이런 승계효과를 갖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비영리법인이 조직을 합치거나 나눌 때에는 어쩔 수 없이 (1) 법인의 모든 자산을 다른 법인에 넘겨주고 해산하여 합병절차를 대신하거나, (2)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필요한 자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분할절차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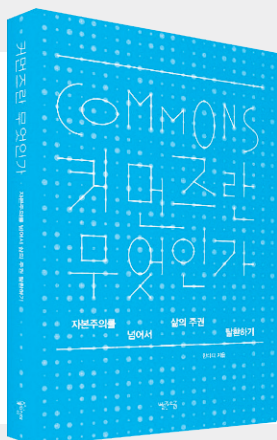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사단법인이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지부를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킨다고 했을 때, 분할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을 신규 설립해야 하므로 지부는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정관의 내용이 유사하다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성격이나 지역이 다른 다양한 사업이 혼재하는 경우 허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뒤늦게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정관을 수정해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산(부동산, 임차보증금 채권, 각종 집기 등)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기본

재산의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부가 자체적으로 취득·관리해온 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도, 회계상으로는 기존 법인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에 관한 모법인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정관변경에 준하여 기존 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부의 폐쇄 결의, 이에 따른 등기 변경도 필요하다.

▶ **비영리 합병분할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답이다!** |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산별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을 양도한다. 신설 법인은 대개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닐 것이므로, 이 때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영리법인 간 자산의 양도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면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니 납부 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각종 보험과 퇴직연금의 변경, 은행 계좌의 개설,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의 신규발급 등의 절차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수행 중이던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과의 관계에서 변경 처리도 복잡해진다. 기존 법인의 업력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데 따르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합병·분할을 통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조직이 비대하거나 과소하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참고 견디거나,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었을 자원의 소모를 감수하며 번거로운 개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법이 제정된 이래 65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지만, 법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인 탓이다. 현재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전면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이 공개되는 시점을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비영리법인 합병·분할 제도의 도입을 지체할 이유는 없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커먼즈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한디디 지음 | 빨간소금 | 17,000원

한국사회에서 2,30대는 분노하고 4,50대는 억울하고 노년은 비참하다고들 한다. 양극화 현상이 심한 사회에서 모두가 외롭고 화나고 비참하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사유지 중 단 1%의 사람들이 소유한 땅이 나머지 99%가 소유한 땅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과 1964년 이후 50년간 한국의 부동산 평균지가가 2,976배 뛰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화나는 일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극단적인 토지의 사유화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돈과 집, 땅에 집착하게 되고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 풍조가 강한 사회가 되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람다움의 존엄함을 지키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

‘커먼즈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커먼즈 연구자로 직접 돌아서아의 다양한 도시 운동 현장에 참여해온 저자 한디디씨는, 길고 긴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와 무엇을 함께 하고, 그를 통해 공통의 관계를 만들며 살아왔다고 하면서 가능한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은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커먼즈의 감각을 조금씩 되살려내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가 말하는 커먼즈(communs)는 보편적 의미로서 “공동체의 일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자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의 패러다임으로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활동 그 자체”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만들어지고/나누는 것, 혹은 그러한 관계를 커먼즈라고 말하면서 ‘살림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세계 짓기’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한 1994년 이전에는 물을 사 마신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경한 일이었다. 조

선은 건국 초기부터 “산림천택(山林川澤)은 백성들과 공유한다”라고 천명하면서 자연자원을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했다. 물은 공통의 것이었는데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경제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 토호들과 조정의 세력가들이 산림천택을 사유화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되었다. 이 책은 여기서 커먼즈란 사고팔거나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어떻게 나눌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 혹은 그러한 활동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치우기 위해 지구를 땀감으로 삼는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세계 짓기 활동인 것이다.

커먼즈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가운데 한국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이었던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난협)에 대한 소개가 흥미로웠다. 출발점은 동네 엄마 15명과 한 달에 한 번 “국수라도 먹으면서 사는 얘기가 하자”고 만든 국수클럽(국수계)이었다. 동네 아픈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원들이 방송국과 노동청을 찾고, 서로 돌아가면서 아픈 여성의 집안일을 돌봐주면서 병원비를 위해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이 조직과 운영에 자신의 시간과 활동을 기꺼이 나누었는데 이것이 커먼즈의 핵심이 되었다. 또한 가난한 젊은이들이 누구나 함께 와서 살자고 초대하며 시작한 ‘빈집’ 주거활동과 빈집의 마을금고로 시작하여 공동체의 잉여를 나누는 은행 ‘빈고’를 통해 금융 커먼즈를 실험하고 있는 활동들을 의미 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사로잡은 불안정성을 새롭게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 커먼즈 운동을 더듬더듬 천천히 감각해가기를 제안하고 싶다.

김주련 전, 한국성서유니온 대표

한국 당사자 운동단체(비영리자조모임) 맵핑

단체(모임)명 | 홈페이지(SNS) | 간략설명 순

장애인 관련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https://padoson.org/index.php>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단체

나는(it's about me!)

<https://www.nanun.org/>
정신적 장애인의 2~30대 형제자매 모임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https://www.facebook.com/estasKorea>
자폐당사자 모임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https://blog.sebada.kr/>
정신적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옹호모임

파파스윌

<https://www.papaswill.org/>
발달장애인 지원네트워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http://www.kshb.or.kr/>
뇌병변장애인 지원단체

환자 관련

다른몸들

<https://www.facebook.com/damom.action>
질병권(잘 아픈 권리) 운동단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http://cord.or.kr>
80만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와 200만 환자 가족을 돕는 단체(약80개의 회원단체 가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https://www.koreapatient.com/>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조성 연대체

한국백혈병환우회

<https://www.leukemia.kr/>
혈액질환 환자 및 가족 모임

한국GIST환우회

<https://cafe.daum.net/>
GIST 위장관 기질 종양 투병 환자 및 가족 모임

(사)한국신장암환우회

<http://kidneycancer.kr/>
신장암 투병 환자 및 가족 모임

암시민연대

<http://www.ilovecancer.org>
암 환자 및 가족 모임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https://chdkorea.org/>
선천성심장병 환자 및 가족 모임

한국건선협회 선이나라

<https://www.gunsun.org>
건선 환자 및 가족 모임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http://www.kst1d.org/>
1형 당뇨 환자 및 가족 모임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https://cafe.naver.com/neuroendocrinetumor>
신경내분비종양(암) 환자 모임

한국PROS환자단체

<https://cafe.naver.com/ktskorea>
PROS환자, 희소복합혈관질환 당사자 및 가족 모임

청년 관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youthpolicy.kr/>
청년 시민네트워크

청년유니온

<https://youthunion.kr/>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https://minsnailunion.net/>
청년 주거권 운동단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https://minsnailcoop.com/>
청년 주택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http://youthmoneyhabit.co.kr>
청년 부채 문제 해소 활동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http://www.gjymh.com>
광주시 청년 부채 문제 해소 활동

청년연대은행 토닥

<https://todakbank.org/>
청년 관계기반 자조금융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https://www.facebook.com/didimbank>
청년 관계기반 자조금융

키다리은행

<https://www.facebook.com/kidaribank>
한양대 대학생 금융협동조합

희년은행

<https://www.facebook.com/jubileebank429>
협동조합형 청년자조금융

공동체은행 빈고

<https://bingobank.org/>
공동체 금융협동조합

안무서운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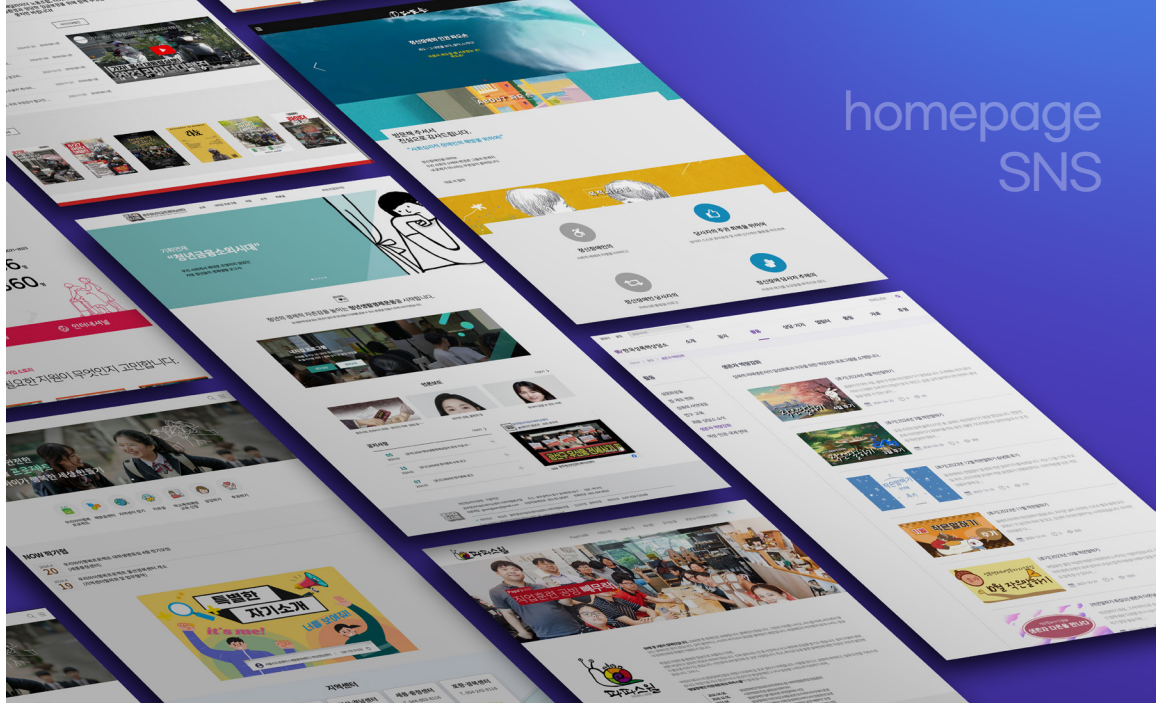
<https://notscary.co.kr/>
고립 · 은둔 청년 지원

n인분

<https://www.instagram.com/n.inbun/>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모임

(주)브라더스키퍼

<https://brotherskeeper.co.kr/>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homepage
SNS

노인 관련

한국헬프페이지

<https://www.helpage.or.kr/>
노인자조모임 사업 운영

노년유니온

<http://cafe.daum.net/eldunion>
55세 이상 세대별 노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

<https://hopeunion.org/>
50세 이상 노동자·비노동자 노동조합

재난피해자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

<http://www.jeu43.com/index.html>
제주4·3희생자유족 모임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https://416sewofamily.org/>
세월호 참사피해자 가족 모임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홈페이지 미개설)
416재단 부설 권리옹호단체

삼풍백화점 붕괴참사(1995),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1999),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1999),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 가슴기 살균제참사(2011), 7.18공주사태부고 병영체 함학습 참사(2013), 4.16세월호 참사(2014), 스텔라데이저 초침참사(2017), 8개 재난 피해자 연대체

코로나19백신포해자가족협의회

<http://covid119.org/>
코로나19 백신부작용 미인정 피해자 단체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https://www.instagram.com/10.29_itaewon_official/
이태원 참사유가족 모임

성소수자 관련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https://ddingdong.kr/>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지원

틀립연대

<https://blog.naver.com/youthtranskor>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퀴어홀릭

<https://twitter.com/QueerHolic>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학우 동아리

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성소수자 부모모임

<https://twitter.com/rainbowmamapapa>
성소수자 자녀의 부모 모임

큐앤에이

<https://www.facebook.com/qnaforchurch>
크리스천 퀴어·엘라이 운동단체

그 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https://www.uri-i.or.kr/home/index.php>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성폭력피해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https://www.sisters.or.kr/activity/ability>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

서울시 자살유족 자조모임 자작나무

<https://blog.naver.com/maum2eum>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메리골드

<https://marigoldgroup.or.kr/>
20-30대 여성 자살사별자 자조모임

톡투미

<https://talktome.or.kr/default/00/01.php>
이주여성자조 단체

전국노린학습자부모연대

<https://cafe.naver.com/chiara20/>
경계선지능인 부모모임

라이더유니온

<https://riderunion.org/>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 상기 목록은 국내 당사자단체(자조모임)의 일부입니다.

정리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

발행일 | 2024. 5. 3.
발행처 | 재단법인 두잉굿센터
발행인 | 김경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5층 500-1호

전화 | 02.6462.1532
팩스 | 02.747.9847
홈페이지 | www.npopia.org
기획편집 |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

